

“왜 228MHz 인가, 근거를 공개하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노조 합동 기자회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9일 정오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DTV 전환 후 방송용으로 할당되는 228MHz 주파수 산정근거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양창근 연합회 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및 연합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 재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700MHz 필수 주파수 대역을 통신재벌에 몰아주려는 방통위를 비판하고 아울러 방통위가 DTV 전환 이후 방송용으로 할당한 228MHz의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창근 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2004년 디지털 전송방식을 주파수 간섭이 심한 ‘미국식 방식’을 선택한데다 이번에 방통위가 지상파 몫으로 정한 228MHz 주파수는 DTV 전환 이후 방송에 300MHz 주파수를 할당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전제한 뒤 “최근 와이브로 사업을 사장시키고 내년에 IPTV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유예하는 혜택을 퍼주는 방통위의 머리에는 ‘방송’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주파수는 국민의 공공재이며 방통위는 DTV 전환 이후 방송에 할당한 228MHz 주파수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공개해야 함은 물론 무료보편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700MHz 주파수를 통신재벌에 넘기려는 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뒤 “700MHz 대역 주파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엉뚱한 사람에게 그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700MHz 주파수 통신사 할당은 나라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 행위이자 밀실결정, 그 자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류성우 언론노조 EBS본부 위원장은 “교수들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 ‘엄이도종(掩耳盜鐘)’이 선정되었다는데 방통위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며 “국민의 주파수를 무력화 시키는 방통위의 꿈수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응식 MBC 기술인협회 회장은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는 물론 주파수 현안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포커판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연합회와 언론노조는 기자회견 말미에 방통위가 DTV 이후 방송에 할당되어야 하는 228MHz 주파수의 산출 근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700MHz 주파수의 무조건적인 통신재벌 할당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양창근 연합회 회장과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명의로 방통위에 관련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함으로써 이번 기자회견을 마쳤다.(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양 창 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언제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전국 방송기술인 여러분! 어느덧 벚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신묘년(辛卯年)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자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협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하고, 또 다른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방송기술계는 유난히도 많은 현안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는 다사다난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제주도 디지털 전환사업은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시발점으로 훌륭하게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분좋은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속원사업인 ‘교수자문단’과 ‘뉴미디어 연구원’을 위촉해 방송기술 정책의 신거점을 열기 위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또 매년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송의 날 시상’ 부문에 ‘음향기술상’과 ‘영상기술상’이 추가된 점은 방송기술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우리 방송기술인에게 있어 ‘그저 흐뭇한 기억’으로만 남는 일 년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케이블 방송사는 자사의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의 시청권을 무시하는 ‘재송신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엄연히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지상파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12월 1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편성채널이 기어이 개국하며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저품질의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움직여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벌과 종편, 그리고 케이블의 입김에 눌려나 합리적인 판단 자체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역시 700MHz 주파수 현안일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미 8월에 최악의 돈잔치로 끝나버린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DTV 전환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필수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성급하게 할당하려 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4회에 거쳐 대대적인 집회와 기자회견, 주파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방통위의 왜곡된 논리를 반박했으며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노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DTV 전환 이후 방통위가 방송의 몫으로 산출한 ‘228MHz 주파수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연내에 통신사로 할당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 108MHz 중 68MHz를 2013년 DTV 전환 이후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나머지 40MHz 대역이 2012년 통신사에 할당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는 것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방송사 할당 요구 주장은 계속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전국의 방송기술인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다양한 성과와 미래, 밝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과 장애물들이 켜켜히 쌓여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항상 굳건히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저물어가는 2011년 한 해의 마무리에서, 사랑하는 방송기술인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희망만 품은채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알박기 꿈수’를 중단하라

40MHz를 반반씩 나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금까지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 모두 할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발 물러나 2012년까지 108MHz 중 40MHz를 통신업자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계 최초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 할당하겠다는 무리수에 대해 방통위가 어느 정도 현실감각을 찾은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MHz를 반반씩 할당해 698~718MHz 하위대역과 786~806MHz

상위대역으로 나누어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해할 수 없는 하위대역 20MHz 할당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20MHz는 상위대역으로, 나머지 20MHz는 하위대역으로 통신에 할당하게 되는데, 사실 하위대역 20MHz는 통신사가 활용할 수 없는 대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위 20MHz는 채널 52, 53, 54와 55 일부로 구성되는데 바로 옆의 채널 51번이 바로 DTV용 대출력 채널이다.

즉 51번 채널은 대출력이기 때문에 소출력인 통신대역은 절대 그 옆에서 활용될 수 없다. 이

유는 또 있다. 일본은 DTV 용으로 470 ~ 710MHz를 배정했기 때문에 일본과 인접한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는 방통위가 통신업자에 할당한 하위대역은 쓸 수 없게 된다.

방통위의 알박기 전술 실체

그렇다면 방통위는 40MHz의 절반인 20MHz를 왜 통신업자가 활용할 수 없는 하위대역으로 할당하려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알박기’다. 40MHz를 반으로 나누어 20MHz씩 상·하위 대역으로 통신에 할당하게 되면, 나머지 68MHz를 2013년 DTV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가 활용하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바로 이점을 노린 것이다.

즉, 108MHz 전체를 통째로 통신업자에 넘기려다 여의치 않자 상·하위 대역 40MHz를 알박기 함으로서 향후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게 할당하려는 꿈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박기’를 전제로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 통신사 분할 할당 정책을 폐기하라



사설

700MHz 주파수는 국민의 것이다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사람'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국 초나라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속에 빠트렸는데, 그는 칼을 찾으려고 물에 뛰어들기 보다는 칼을 빠트린 뱃전에 표시를 해두곤 배가 언덕에 닿아서야 표시해둔 뱃전 밑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칼이 그 자리에 있을 리 만무하다.

이 이야기는 중국 여씨춘추에서 전하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융통성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할 때 이 각주구검의 예를 들어 핀잔을 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교훈이 숨어있다. 바로 '구시대의 방법을 우직하게 쓰는 사람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이다. 아무리 배에서 내려 칼을 찾아봐도 칼은 없다. 시간은 이미 흘렀으며, 육지에 도착한 이상 다른 방법으로 칼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를 통신에?

정부는 2004년 DTV 전송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주파수 효율이 높은 유럽방식 대신에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만 활용하는 미국방식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그토록 강조하며 통신기술의 '갈라파고스'를 걱정하던 정부가 당시 DTV 전송방식 결정에서는 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는지에 대한 토론은 나중으로 미루자.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다.

최근 방통위는 한국방송협회, 전국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결국,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를 떼내어 2012년 통신사에 할당하고, 나머지 68MHz를 DTV 전환이후 할당할 것이라는 '협상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2004년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격이다. 당시 가전제품 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정부가, 2011

년 통신사의 입김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격이다. 각주구검의 주인 공처럼 방통위는 과거 자신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려한다.

주파수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하며 이는 '난시청 해소'라는 '만고불변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통신사에 국민의 재산인 해당 주파수를 일부 떼어내어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힘쓰지 말고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부를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라는 대중적인 차원에서 할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통신사들에게 이른바 주파수라는 '뒀 돈'을 챙겨주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원칙없이 처분하려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오해한 것이라 믿고 싶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자식이라 우기는 두 여인에게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 그 시신을 각자에게 주라고 했고, 이에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을 위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해당 주파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필수대역인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진짜 어머니' 격이다. 이에 반해 통신사는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가짜 어머니'가 된다. 따라서 방통위는 종편채널에 골고루 출자한 통신사의 탐욕을 위해 주파수라는 뒀돈을 챙겨주어선 안 된다. 이와 같은 공정성 잃은 행동은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스스로 자중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2013년 DTV전환 이후로 연기 결정해야 한다.

단신뉴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지난 21일 표준 총회를 통해서 기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서비스와 호환성을 유지하며 3D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서비스 되고 있는 프레임 호환 방식의 3DTV 방송은 3D영상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좌·우 영상의 화질을 각각 1/2로 줄여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TT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D영상과 관련된 좌·우 영상을 각각 기준영상(좌 영상)과 부가영상(우 영상)으로 구분하고, 기준영상은 기존 디지털TV와 같은 MPEG-2로 부가영상은 MPEG-4로 부호화하는 하이브리드 코딩 방식을 적용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난방송 발전방안 모색과 정부·방송사 등 각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11 재난방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정부부처·방송사·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발족식도 함께 진행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난 22일 '2011 소비자행태조사(MCRI)' 매체 접촉률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TV가 97%로 인터넷(80%), 케이블TV(75%) 등 10대 매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지상파TV를 하루 평균 163.3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98.8분, 케이블TV 95분, 위성방송 92.6분을 크게 웃돈 수치다. 특히 지상파TV는 광고 주목도, 호감도, 구매 영향력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협회는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제주도 화닉스 아일랜드에서 제1회 방송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 이준웅 교수의 '선거 여론조사의 점검과 성찰-판세 분석 여론조사'와 한양대 정제창 교수의 '지상파 4세대 방송 활성화 방안 연구-700MHz 여유(필수)대역 활용방안'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는 향후 방송발전에 관련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와 방송협회 인사, 기자들이 참여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문제는 “잘못된 중재자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측이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비대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이 조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케이블비대위는 지난 21일 "케이블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정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이미 법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위의 분쟁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측은 지상파 디지털 신호 송출 재개 이후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5일 정오를 기한으로 두 번째 협상 연장에 들어갔다. 당초 양측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14일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지금도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며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측의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이하 CPS)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은 이전과 같이 신규가입자 1인당 280원을 시작으로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케이블 측은 1인당 100원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

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방송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지상파비대위)는 "방통위가 지난 5일부터 중재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역할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파비대위는 "지난 3년 동안 양측의 소송과 관련된 5차례의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방통위는 케이블의 재송신이 위법행위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와 '광고 수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지금의 중재 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재송신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주파수 할당, DTV 전환 이후로”

“700MHz 대역 주파수는 결코 여유 주파수가 아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700MHz 주파수 활용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방통위가 통신 쪽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주파수 할당에 앞서 디지털 전환 이후 회수할만한 여유 주파수가 있는지 그 존재여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아날로그 TV 종료와 디지털 전환 이후의 세부 채널배치 계획'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기본적으로 압축 및 전송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

존 주파수 대역보다 적은 주파수 대역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주파수 회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새로운 주파수 혼신과 난시청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혼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무선 주파수는 혼신이 될 수밖에 없는 매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존 지상파 아날로그 주파수를 모두 임시대역으로 이동시키고 백지상태에서 채널 재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날로그 주파수 틈새에 DTV 주파수가 배치되어 있다"면서 이대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면 주파수 혼신과 난시청 가구가 부지기수로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는

결코 여유 주파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자로 참석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디지털전환법'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의 전제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유효 주파수로 나온다는 것"인데 "디지털 전환을 법으로 명시한 '디지털전환법' 자체가 위법하다면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할 때는 박탈당하는 재산권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전환법'에는 재산권 보상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아날로그 TV로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라는 재산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종편 개국 한 달 ‘막 나간다’

모두의 우려 속에서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이(이하 종편)방송 정상화는커녕 연이은 방송사고와 친일 보도 논란, 그리고 1%대도 안 되는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다.

종편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조중동방송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편은 자막 실수와 음성 불량, 그리고 출연자의 이름을 바꿔서 표기한 뉴스가 고스란히 방송을 타는가 하면 심지어 음성변조 처리된 인터뷰와 외국인 인터뷰에 자막을 표기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적인 실수 외에도 JTBC의 경우 '친일 보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뉴스에서 조선왕실 도서반환 소식을 알리며 "일본 정부가 자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서 반환을 '결단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서"라며 반환을 위한 국내 민간사회단체의 노력은 배제하고 일본 정부의 결단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모니터단은 일본 아사히 TV가 JTBC에 130억 원을 출자하고 콘텐츠 및 인적교류를 결정한 사안이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15개 법조 및 문화, 학술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 불참여'를 선언하며 '종편에 대한 집단적 거부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 대표는 "종편 탄생에는



언론인은 물론 학자와 지식인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종편 불참여 선언은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를 복구하는 성실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디어렐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종편이 더 이상의 미디어 생태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방통위의 심각한 '종편 특혜'를 비난하기도 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미디어렐, 점입가경

을 열었으며 21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미디어렐 법안 제정을 위한 최소 원칙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기에 MBC가 26일 자사뉴스를 통해 가칭 'MBC 미디어렐'을 설립해 광고직 영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해 후폭풍이 거세다. MBC는 보도를 통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미디어렐 법안이 효과적으로

처리되길 바랬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독자적인 광고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지역사와 종교방송 등과 협의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종편 미디어렐 편입 3년 유예설'이 여전히 비등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지상파는 물론 종편까지 '미디어렐 진흥방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조중동 방송은 사회적 흉기"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조중동 종편 '불참여' 기자회견
中...더 무서운 말이 나올 것이 확실
하기에 이런 점점 무서워집니다."

"최근 와이브로 사업을 사장시키고 내년에 IPTV와 종합편성채널의 방통발 전기금을 유예하는 혜택을 퍼주는 방통위의 머리에는 '방송' 자체가 없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19일 DTV 전환 관련 주파수 228MHz 산정근거 공개 촉구 기자회견
中 최시중 위원장은 다른 생각이 많은 분 같습니다... 혹시 정치?"

"농사를 스마트하게"
(방송통신위원회)
"22일 '스마트팜' 서비스를 소개하며...방통위 여러분, 현안에 대한 '스마트한 중재'도 좀 부탁드립니다."

(1면에 이어)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전면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위는 1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위시한 방송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2011년 해당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겠다는 당초의 결정을 백지화하며, 2012년에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를 통신사에 할당하는 한편 나머지 68MHz 대역은 DTV 전환 이후 상황을 고려해 할당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 40MHz도 상위대역과 하위대역으로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향후 통신사가 108MHz 전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가 40MHz를 반으로 나누어 상·하에 배치할 경우 훗날 사이에 있는 68MHz를 DTV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방송이 활용하려해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방송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며 시간을 끌다가 중국에는 108MHz 전체를 통신에 할당하려는 꿈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700MHz 중 40MHz를 통신에 할당하고 2012년까지 170MHz를 추가 확보해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할 계획을 재차 확인했으며 일각에서는 군대용으로 활용되는 1.8GHz 대역 주파수 70MHz가 방통위의 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양창근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건희 서상원 정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 백선하 최진홍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은행나무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2011년 한 해를 마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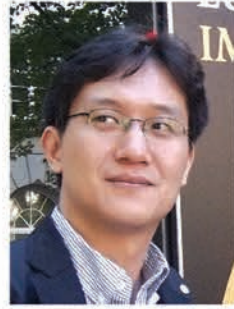
김 성 훈
편집주간



서 상 원
MBC편집위원



장 진 영
SBS편집위원



송 주 호
EBS편집위원



윤 현 철
EBS편집위원

어느덧 2011년이 다 지나고 201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저물어가는 한 해의 막바지에 아쉽게나 힘들었던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공공의 이익 사수'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은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위해 상식을 파괴하고 편법을 동원하며 집요하게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노리는 실정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를 2012년 통신사에 넘기고 나머지 68MHz를 2013년 DTV 전환 후에 할당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 우선 배정한다는 40MHz를 반으로 나누어 상·하위 대역으로 배치한다는 주장은, 결국 700MHz 전체를 통신에 할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파수는 난시청 해소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DTV 전환 이후에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도 앞으로 해당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DTV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혁신의 길목에 서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송기술인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방송기술저널>의 편집주간으로서 방송계의 산적한 현안들, 수신개선과 다채널 서비스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지나고 보니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울바른 울림이 되어 세상에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저 또한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방송기술저널> 4·5면을 통해 소개된 '특집'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어지는 특집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연합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편집위원, 편집기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2011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염이도종'(掩耳盜鐘)이 선정되었네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라 검색을 해보니 유래에 대해 설명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범무자의 후손이 다스리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 그 때 백성 중 한 명이 종을 짊어지고 도망가려 했다. 그러나 짊어지고 가)에는 종이 너무 크고 무거웠다. 망치로 깨서 가져가려고 종을 치니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 백성은 다른 사람이 종소리를 듣고 와서 종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고 종을 쳤다고 한다. 염이도종은 자기 귀를 막고 종을 울린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남의 비난과 비판이 두려워 귀를 틀어막는 것을 말한다.

올해도 지난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굼직굼직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양자 간 이해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송기술저널>에서도 올 한 해 주요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들만 보더라도 소통의 부재로 인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들도 있긴 하지만요.

현재 한창 논의 중인 700MHz 대역 활용방안이나 지상파-케이블간 재송신 문제는 솔직히 소통의 부재라기보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만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울뿐 정작 실질적인 피해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는 눈길조차 두지 않는 조직들의 아집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년 전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선정된 사자성어 '호질기의(護疾忌醫)'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는 '염이도종'까지 오게 됐네요.

해마다 선정되는 사자성어들이 대체로 정부나 큰 이슈들에 의해 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인 삶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년계획 잘 준비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보고 보듬어주는 연합회원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송년사를 썼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도, 별 탈없이 한 해를 보낸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

어느덧 2011년의 마지막주입니다. 연합회원님들 모두 잦은 술자리로 쓰린 속 잘 다스리면서 들뜬 마음은 적당히 가라앉히고, 차분히 새해 계획 세우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방송과 관련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방송용 7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 '케이블 재전송 문제', '종합편성채널 방송 시작'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700MHz 문제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유보방침에 급한 불은 꺾지만, 여전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08MHz 대역중 40MHz가 통신용도로 할당된 반면, 나머지 68MHz의 사용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진대,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패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송년사를 쓸 때만 해도 700만대 수준이었던 스마트폰의 보급대수가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2,000만대로 일년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판매량에서 데스크톱 및 노트북 보급대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과 같은 '손 안의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형태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고, 원하는 콘텐츠를 즐기면서,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뉴미디어와 경쟁하려면 기본을 확실하게 갖춘 다음, 지상파만의 강점을 보다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방송 서비스의 기본은 잘 관리된 무선망입니다. 내년에 있을 디지털전환을 계기로 무선망을 강화하고, 강화된 무선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를 새해는 흥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용은 운비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내년은 용과 같이 방송기술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합회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의 시대입니다. 올 한 해 제시된 수많은 일들은 '스마트'라는 단어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웬지 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스마트 기기들의 조종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지요. 어쩌면 착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위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었으며, 방송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많은 방송사들은 스마트폰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사는 난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민하고 있지 않던가요? 어쨌든 방송사들은 시대를 읽고 스마트하게 대처하여 훌륭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만큼 '방송사'의 가치를 되새겼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갈등은 각자의 망의 가치를 되새기며 방송사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700MHz 대역에 대한 갑론을박 속에서 방송사는 '공익'을 우선함으로써, 방송의 우선적 가치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케이블에서 지상파 HD가 나오지 않자 안테나를 구입해서 DTV 직접 수신을 시도하신 분이 있는데, 깨끗한 화질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름대로 아쉬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해인들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다만 다음 해에도 내가 존재하고, 그렇기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또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를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올 해만큼은 여럿이 모여 한 잔 나누기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기감과 이에 대한 끝까지 않는 마무리는 여전히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서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왠지 다시 한 번 부딪혀보자는 공감대가 느껴지는군요.

그래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각자의 삶과 그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방송기술은 콘텐츠 예술과 연결되기에, 우리 방송기술인들에게는 세상과, 땅과, 하늘과 대화하는 시간이 지극히 필요합니다. 새해 임진(壬辰)년에는 '흥룡'의 거대한 기운에 걸맞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 이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아직 남은 며칠, 한 해 동안 있었던 나의 변화가 내일의 희망이 되리라 외치며 건배합시다.

어느덧 2011년 신묘년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생활에 무심코 지나왔던 시간들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작년과는 다른 급년이 되길 원했지만 매년 희망사항으로만 끝나버리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기만 합니다.

올 한 해는 전반적으로 바쁜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와 논란, 그리고 새로운 매체의 도전에 고군분투하는 한 해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공론화 되었으며, 지상파의 N-SCREEN 서비스를 통해 방송 서비스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환경 속에서 지상파 방송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라는 크나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700MHz 대역 주파수 논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방송기술인 협회원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삶의 시간을 되새기며, 더욱 값진 한 해와 더 나은 내일이 되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 기술' 정기 구독권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3219-5635 팩스 : 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방송기술저널이 뽑은 2011 방송계 10대 뉴스

1.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분쟁

주파수는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주파수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의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5월 정책 토론회와 11·12월에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해당 주파수는 2013년 DTV 전환 이후 할당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2012년에 40MHz를 통신사에 할당하고 나머지 68MHz를 2013년 DTV 전환 이후에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를 비롯한 방송 진영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방통위는 통신진영에 40MHz를 상·하 대역으로 나누어 할당하는 방안을 통해 중국에는 108MHz 전체를 통신에 몰아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관련 현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 제주도 DTV 전환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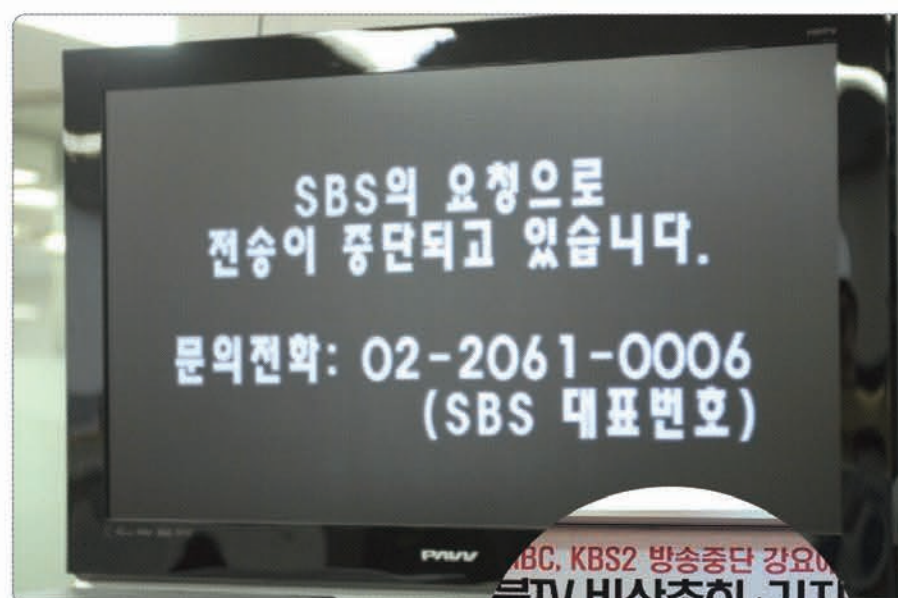
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단추



2010년 울진, 강진, 단양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011년에는 제주도 디지털 전환사업을 시행했다. 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송수신 환경 개선과 시청자 직접 지원을 위한 방송기술인들의 디지털 전환 사업도 점차 힘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지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등을 통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동시에 2012년 한 해에도 방송기술인들이 발걸음도 빨라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이웃나라 일본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3. 지상파-케이블 SO 분쟁

'시청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지상파 콘텐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변하며, 10월 말 법원의 재판결과에 까지 불복한 케이블 SO들이 기여어 시청자들의 '시청권'까지 박탈해 버렸다. 이에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지상파 HD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 SO들은 다시 협상에 나선 지상파 방송사들과 간신히 재송신에 합의했지만,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실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난시청 해소에 SO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한 RO들이 이번 재송신 사태를 일으킨 SO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4. 종합편성채널 개국

미디어 생태계 붕괴 신호탄 울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청난 특혜 논란 속에서 종합편성채널이 12월 1일 정식으로 개국했다. 이들은 황금채널 논란과 방통발전기금 유예,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화려하게 첫 발을 디뎠으나 이내 잦은 방송사고와 자막 오류, 그리고 미숙한 방송 진행으로 인해 개국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에 있다. 철저히 정권지향적인 방송과 특정한 미화는 물론 방송 언론의 책임에 대한 일말의 철학도 없는 종편의 등장은 2011년 겨울을 유난히 춥게 만들었다.

5. 2기 방통위 출범

방통위...내 안에 방송없다?



3월 28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도 연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방통위 2기의 목표는 '스마트'이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방송통신 사업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을 마감하는 한 해에 서서 최시중 위원장의 말은 아쉽게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파수 경매제를 밀어붙이고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최대한 밀어주려고 노력하는 등 철저히 친통신위원회의 수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또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하는 통신사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 노력하는가 하면 채널배정권을 SO에게 위임하여 자칫 종편에 반발을 가질 수 있는 SO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압박하고 있다. 2기 방통위. 그들에게 방송은 없었다. 통신사의 이득과 '종편의 라이벌인 방송'만 있을 뿐이었다.

6.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4돌

방송기술인의 끝없는 성장



1987년 11월부터 대한민국의 방송기술발전과 올바른 방송문화창달에 힘써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4돌을 맞으며 올해도 무럭무럭 성장했다. 1991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방송기술의 '키워드'를 꾸준히 제시했던 'KOBI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2011이 6월에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11월에는 많은 방송기술인들이 모여 열린 토론회의 장을 열었던 '2011 가을 방송기술 컨퍼런스'가 열렸다. 여기에 한국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방송의 날 시상' 부분에 '음향기술상'과 '영상기술상'이 추가되어 방송기술인의 위상과 전문성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합회 속 원사업이던 '뉴미디어 연구관'과 '교수자문단'을 위촉하여 발전하는 방송기술의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학계의 다양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방송기술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초석을 세웠다.

2011년 한 해는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던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단위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회수 가능한 700MHz 필수대역 주파수의 할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뉴미디어의 성장은 방송기술인에게 기분좋은 도전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함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700MHz 대역 필수 주파수를 둘러싼 방통위의 정책적 오판과 종합편성채널의 질 낮은 방송 시작, 자사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케이블 사업자의 재송신 중단까지. 하지만 희망을 꿈꿀 수 있기에 201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더 나은 2012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부디 내년 2012년 10대 뉴스에는 기분좋은 소식만 있기를 기원해본다.

7. 지상파의 미래

다채널 방송과 뉴미디어의 시대가 온다



2011년은 다양한 지상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한 해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

분야인 '다채널 서비스'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핵심'이었으며 4k, 8k 등의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다채널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전환, SO들의 후안무치한 콘텐츠 습격, 그리고 방통위의 무관심한 지상파 정책 등에 대응해 가장 효과적으로 무료보편적 공공의 서비스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면서 각종 토론회와 컨퍼런스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뉴미디어의 경우 전 세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일본은 이미 UHDTV에 대한 연구를 10년 이상 해오고 있고, 당장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차세대 방송 파급효과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의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8. 미디어렐 문제

국회에서 표류중인 미디어렐 법안



미디어렐 문제는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함께 수면으로 급부상한 현안으로서, 미디어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한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미디어렐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며 이 틈을 탄 종편들은 미디어렐에 편입되지 않고 광고 직접영업을 위한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동시에 기존의 코바코(KOBACO) 체제 안에 있던 지상파 방송사들도 광고 직접영업에 대한 욕심을 숨기고 있지 않으며 현재 SBS의 경우 미디어 홀딩스를 통한 구체적인 광고 영업 시도를 하고 있으며, MBC도 정식으로 미디어렐 설립을 선언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6인 소위'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편 미디어렐 편입 3년 유예 주장'이 제기되는 등 문제를 풀 실마리는 요원한 편이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미디어렐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9.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언론노조, 투쟁의 깃발을 들다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정식으로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총 84.9%의 찬성률로 총파업 안건을 가결한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은 "전국의 1만5천 언론노동자들이 펜을 놓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끄는 파업을 실시한다"는 출정사와 함께 "공정방송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열린 총파업은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 방송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이라 명명되었으며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위한 다양한 특혜를 중단하고 미디어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총파업 선언 후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으며 12월 개국한 종편의 위법성과 방통위의 무분별한 특혜 몰아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

10. 우면산 EBS 방송센터 침수

가슴 아픈 침수사태...그러나



올 여름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강남 우면산 EBS 방송센터가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월 27일, 오전 8시 50분 경 방

송센터 두 개 동 중 한 동의 1층 기계실에 물과 토사가 밀려들었으며 이에 EBS 방송센터는 정상적인 방송이 어려울만큼 침수사태가 벌어졌고 토사가 밀려내려와 복구 작업에만 수일이 걸렸다.

특히 방송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신시설이 손상되어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영어교육채널이 EBS 지상파TV로 대체돼 방송되는 등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EBS의 조속한 복구대책과 군인 및 경찰, 그리고 각계각층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EBS는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갔으며 현재는 당시의 사태를 짐작할 수 없을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화되어 있다.

www.kobeta.com

방송기술저널

700MHz 주파수 할당, DTV 이후로 유효하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기자회견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정책 전문 언론지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방송기술저널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 방송기술정책 격주간지입니다.

〈방송기술저널〉은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 정책 전문지입니다.

언제나 방송기술분야의 빠르고 정확한 현안들을 분석하고 알리며,

생생한 땀의 흔적이 배인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보도합니다.

또한 〈방송기술저널〉은 방대한 데이터와 현안 및 특집, 그리고 기고문을 비롯해

트위터와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전달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뉴스를 엄선해 대한민국 방송기술정책의 새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저널

KOBA

“디지털 전환의 해결사” 2011 방송기술대상 수상자를 만나다

EBS ● 디지털 전환 추진 및 ASO 지원단

최근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2011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EBS 디지털 전환 추진 및 ASO 지원단>을

만나기 위해, 추운 겨울날 도곡동 EBS 본사로 찾아왔다.

로비를 지나 3층 회의실에 도착하니 지원단 대표로

인터뷰에 임하기로 약속한 홍대용 차장과

유귀성 차장이 반기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다.

사실 지금에야 고백한다.

처음에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지원단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추운 겨울날 유귀성 차장이

내어준 따뜻한 커피가 더 반가웠으나, 이내 인터뷰를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전하는 이들의

모습에 기자는 늦었지만,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다.

정리/사진 최진홍 기자 rgdsz@kobeta.com



오늘 인터뷰는 <EBS 디지털 전환 추진 및 ASO 지원단>을 대표하여 홍대용 차장, 유귀성 차장과 진행되었으며, 통칭 <지원단>으로 명명한다.

안녕하세요. 먼저 방송기술계의 권위있는 상인 '2011 방송기술대상'을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원단 : 우선 EBS방송기술인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큰 자긍심이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EBS 디지털 전환 추진 및 ASO 지원단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단 : 저희는 2009년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각 방송사별로 역할분담을 나눌 때, 'EBS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친 후 크게 두 가지의 대의명분을 세웠습니다.

첫째,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둘째, 학생에 국한된 지원을 벗어나 '시청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전환 직접지원

에 충실하자입니다. 그래서 <대외기술정책 및 홍보 등> 파트와 <EBS 기술지원>, <현장 작업지원>의 세 파트로 나누어 지원단을 꾸리게 된 것이죠.

시청자 중심에서, 발로 뛰는 현장 지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단을 통해 해 오신 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원단 : 시범사업이었죠. 2010년 경상북도 올진 시범사업과 2011년 제주도 시범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올진 시범사업은 전국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첫 스타트를 끊는 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올진 시범사업이요?

지원단 : 네. 당시 시범사업 일정이 잡히고 우리 지원단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곤 곧 결론을 내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EBS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자. 그리고 직접 시청자에게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행사'의 성격으로 올진 시범사업에 임했을 때 우리는 3일 전에 현장에 내려가서 현지 <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센터>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 직접 가구를 돌려 컨버터를 달아주고 안테나를 설치해주며 현장위주의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물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송수신설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는 수신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전파 측정차가 큰 역할을 했다면요?

지원단 : 맞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파 측정차를 디지털 전환 환경에 걸맞게 개량하여 직접 물고 올진에 내려갔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신환경개선 작업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전파 측정차의 공이 컸습니다. 시청자 중심의 현장 지원에서 정말 큰 일을 했죠. 그랬기에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 전파 측정차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직접 시승해 운용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제주도 이야기도 해주세요.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원단 : 사실 기존의 시범사업을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만 하다가 제주도 같은 '도'급의 지역을 디지털 전환 시키려니 어려운 점이 많더군요. 우선 도시지역은 기존의 시범지역과 달리 주민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그에 따른 불협화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원단은 최초로 내세웠던 '시청자 중심의 수신환경개선'이라는 전제 아래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웃음)

지원단 입장에서 제주도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원단 : 미완의 완성이 아닐까 합니다. 더 큰 성공으로 다가가는 '채워지지 않은 성공'이죠.(웃음)

디지털 전환을 위해

너무 잔인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지원단의 일원으로서 현재 정부

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짚어내 보신다면?

지원단 : 저는 두 가지 현안에 정부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범위가 점점 일반인에게로 커지면 당연히 한정된 예산에서 마찰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약 1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을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 예산이 1,046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다채널서비스입니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 전에 직접 수신률이 5%대였는데 디지털 전환 이후 다채널 서비스의 조기정착으로 현재 50%에 육박하는 직접 수신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지요.

우리도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꼭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원단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지원단 : 우리 지원단은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지원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마저도 상설팀이 아닌 TF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칫하면 팀워크가 붕괴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호흡이 정말 잘 맞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각자 다른 팀에 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뜻이 안 맞으면 서로 일하기가 힘들어지게 사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생물처럼 같은 생각과 이상으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적극적이기까지 하니..(웃음)

바로 그런 모습이 대상의 영예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원단 : 네. 저도 자랑스럽고, 또 팀원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주도 남서해안 지역과 고흥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신환경개선을 위해 전파 측정차를 타고 돌 때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으며 재작년 올진에서 시청자를 만나고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지원할 때는 더운 여름에 몸과 마음까지 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열망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는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일정을 마무리 하며 올진 죽변 해수욕장에 찾아가 시원한 바닷물에 한 번 킁킁 빠지고 팀원들끼리 서로 크게 한 번 웃고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웃음)

과연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디지털 전환 해결사'라는 찬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 방송기술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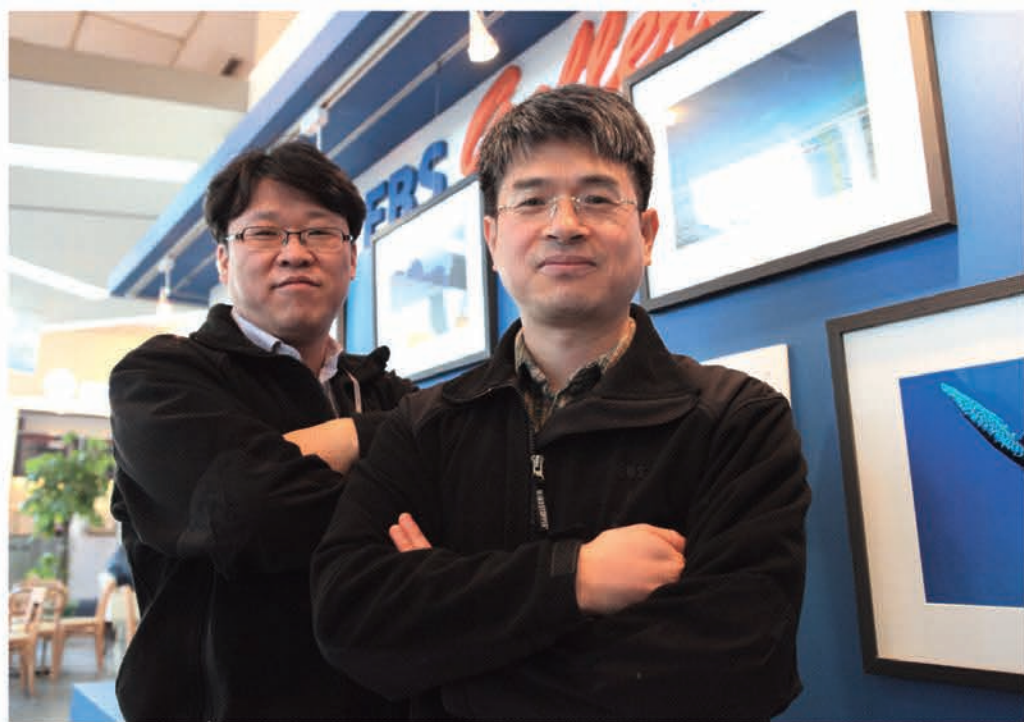
지원단 : 저희 지원단은 디지털 전환 이후라도 후속조치를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다.

그리고 그 이정표 아래에서 흑여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EBS 디지털 전환 추진 및 ASO 지원단>은 오늘도 EBS 마크가 선명히 박힌 전파 측정차를 타고 현장을 누빈다.

그들은 2013년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꾸준히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지원단의 어깨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걸어본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 제 창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차세대 방송을 위한 700MHz 필수대역 활용 방안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시대가 열린다. 이에 따라 정부의 TV 방송 관련된 주파수 대역이 새로이 정비되어 700MHz 필수대역의 18개 물리채널(채널당 6MHz, 총 108MHz)이 필수대역으로 남게 된다. 전파 특성이 양호한 이 소위 “황금 주파수 대역”은 차세대(4G) 방송 서비스 분야, 차세대(4G) 이동통신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 있어서는 2000년부터 HDTV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최근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HDTV 이후의 차세대 방송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세대 방송의 방향으로 현재의 HDTV보다 더 인간의 감각에 충실하여 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3D(3 Dimensional)와 UHD(Ultra High Definition)의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DTV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D Blu-ray도 표준화가 끝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의 두 대표 기업이 3DTV 디스플레이 방식을 두고 FPR(Film Pattern Reflection) 방식과 SG(Shutter Glass) 방식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UHD는 3D에 비해 한발 늦었지만 이에 대한 수요 또한 적지 않다. 이미 할리웃에서는 2009년의 ‘천사와 악마’를 필두로 4K 디지털 영화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K에 비해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므로 최근에는 드라마 ‘추노’에서 보듯이 2K 해상도인 HDTV에 있어서는 4K 카메라(RedOne 카메라)로 찍어 2K HDTV로 해상도를 낮추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TV도 계속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55인치 TV까지는 HDTV로서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면 TV는 HDTV 해상도로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최근 60, 70, 80 인치대의 UHD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속속 개발되어 선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SID2011에서 삼성전자는 75인치 3DTV를, LG전자는 84인치 UHD-3D 패널을 각각 선보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최근 필자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필요성, 기술 발전 동향, 표준화 동향 등을 살핀 후, 지상파에서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700MHz 대역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¹⁾제안된 방안은 700MHz 필수대역의 반인 9개 채널(총 54MHz)을 차세대 방송 목적으로 할당하여, 차세대방송 초기에 5개 방송사(KBS1, KBS2, MBC, SBS, EBS)가 전국 주요 지역을 커버리지 영역으로 하면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에서 3D 방송과 4K UHD 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방송사는 현재의 방송 채널을 이용해서 기존의 MPEG-2 기반 방송을 현행대로 하고 주어진 각각 하나씩의 6MHz 추가채널을 이용해서 콘텐츠에 따라 3D 방송 혹은 4K UHD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유료인 위성이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차세대 방송을 실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전국민에게 보편적 시청이 가능해지고 정보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통신 분야 또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인 주

파수 대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액세스하는 정보중 적지 않은 내용은 뉴스, 일기예보, 스포츠, 주식, 실시간 방송 등 공통적인 것들이다. 이들 정보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각자 액세스할 경우 통신의 특성상 1:1의 개별적인 통신로가 다수 열려야 하고 이에 따라 주파수 자원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이는 또한 통신 고유의 목적인 전화나 개별적인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이들 공통정보를 방송망을 이용해 액세스할 경우 단일 주파수 자원으로 모두에게 공통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해 대중에게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통정보는 방송망으로, 개별정보는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편집자 주 - 해당 글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정책 창 교수의 주장입니다.

윤 영 태
동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1월 30일 부산일보가 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홈페이지도 폐쇄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측은 이날 편집국 기자들이 이호진 노조위원장 해고와 이정호 편집국장 징계위원회 회부 사건을 지면에 실으려하자 유권기를 세우고 해당일 신문발행을 중단했다. 부산일보는 온라인에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도 폐쇄했다. 이는 부산일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 이유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정수재단)와의 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일보의 경우 발행이 중단된 것은 1988년 편집권 독립 투쟁 이후 23년 만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태의 원인은 편집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엔 50여 년에 걸친 깊은 악연이 있다.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일가의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날 발행되지 못한 신문 1면과 2면엔 “유력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 나선 만큼 신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재단과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며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재단의 사회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려있었다. 노사갈등을 촉발한 정수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각각 한자씩 따 만든 것으로,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 설립된 ‘5.16 장학회’가 그 전신이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2005년까지 정수

재단의 이사진을 맡았다. 아직까지도 부산일보의 주식 100%는 정수재단 소유며, 사장에 대한 임명권 역시 정수재단이 갖고 있다. 노조가 공정보도를 위한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가 완전히 분리돼야 편집권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문지필을 위한 부산일보 사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불붙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편집권 및 편성권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편집권을 주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편집권은 사주나 이사회에 속하지만 편집책임자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편집권이 일선기자를 포함해 언론 종사자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문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서 점차 신문의 상업화, 기업화에 따른 사주나 경영진의 압력으로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전까지 주로 문제가 되었던 국가와 언론사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언론사 사주와 소속 언론인 사이의 갈등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편집권을 언론사 내부의 권한 귀속문제로 파악할 경우 편집권은 언론사의 소유형태에 따라 그 귀속이 가변적일 수 있다. 언론사가 개인소유인가 법인소유인가에 따라, 또 법인인 경우에도 사법인인가 공법인인가,

그리고 사원지주제인가 아닌가에 따라 편집권의 주체, 범위, 귀속 등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는 개별 언론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고안해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며, 만약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적합한 장치가 자율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 타율적으로 그러한 장치를 제도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모니터 보고서에서 부산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부산일보는 ‘박근혜 띄우기’로 대표되는 편향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박근혜 띄우기’는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선거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노조 역시 선거 때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편파 보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박 전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기사가 탄핵 정국 후 그가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4년 총선을 사흘 앞둔 4월 12일, 부산일보 기자들은 “낮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며 편파 보도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편파보도에 대한 지역사회와 부산일보 종사자들의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편파보도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 따라서 언론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집권 독립 또는 내적 언론자유의 일차적 목표는 발행인과 편집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장은 다시 언론 자유 개념의 확장으로 가능한데, 내적 언론자유는 편집상 제약 요소로부터 간섭배제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표현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언론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적극적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반자유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 언론사상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언론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론장의 생산(정보제공-의견형성-논의)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집 및 편성의 독립과 자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편집 및 편성의 독립과 자율을 위해선 노사 간의 협약 또는 제도적 장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 및 경영 부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점이 현재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운동, 나아가 정수재단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될 것이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 2012 제22회 국제방송 음향·조명기기전

22nd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5.29~6.1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예정)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kobashow.com

